

서여대협 기지촌활동추진위 각 지구주체 1차모임

일시 : 간오농민전쟁 100년 6월 19일 늦은 6시 경희대에서
참가 : 농지, 서지, 복지

94

1. 지구보고

1) 농지

1) 기관 참가학교 - 건대, 경희대, 광운대, 한양대, (세종대, 서울여대, 서당대, 산인대) (4개 학교)

2) 기관대외인 연계 모임중

2) 복지

1) 기관 참가학교 - 서경대, 한양대, 국민대 (3개 학교)

2) 기관대외인 모임중이고 올해에는 복지차원의 지구 기관학교를 고민중

3) 서지

1) 참가학교 - 연세, 중앙, 서강대, 이대, 경기대 (5개 학교)

2) 93년 주주지는 1차 기획 주제모임 93년 기획평가 및 준비일정 등주 연대의 관철을 바로 참가

4) 남지

1) 참가학교 - 중앙대, 숭실대, 성공회신학대, 단국대, 동국대 (5개 학교)

2) 대부분 기획경험이 없어서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막막함

2. 지구연석회의의 수위는

1) 농지 - 90년 개별적으로 진행된 겨울기활을 조직적으로 준비하여 정착화시키지

2) 복지 - 늦었지만 남은 기간을 잘 활용하면서 준비라자 실제활동에 대한 많은 고민이 되고 지구별로는 준비가 되지만 이 자리에서는 서여대협의 강화속에서 어떠한 내용을 채워야 할지 막막함

3) 서지 - 재재모임을 준비하고 이끄는 단위

4) 남지 - 실제로 서여대협의 조직체계 정비가 늦어지면서 기획등의 준비가 늦어질 측면이 존재한다. 그러한 점에서 본다면 겨울기활을 조직적으로 준비해 들어가면서 서여대협의 조직체계를 세우는 방도를 고민해야 할지 않을까한다

2-1. 우리는 왜 기지촌활동을 서여대협이라는 연대조직속에서 풀어내려고 하는가

1) 농지 - 94년 기활을 혼자서 준비하면서 느끼는 어려움. --> 연대조직을 통해 개별적인 모습을 극복하고 어려움을 풀수있다고 생각함.

2) 복지 - 기활을 준비하면서 연대조직에의 결속력을 강화하고 어려워하는 단위를 추동해내는 역할까지 수행하여야 할 것임.

3) 서지 - 연대사업을 재기로 과학교를 연대조직에로 모아내면서 한해, 두해 발전한다고 생각한다. 서여대협을 나의 조직으로 받아들이는 자세와 관점을 세워나가야 할 것이다.

4) 남지 - 기활에 대한 배우들, 학교의 높은 관심을 제대로 모아내지 못한 점을 주체들로부터 만성하면서 시작하자.

==> 개별성의 극복, 서여대협의로의 결속력 강화, 서여대협을 나의 조직으로 만들어내자. -->

1) 이러한 역할을 해내기 위해서 지구주체 모임에서는 지도의 내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

2-2. 지도의 내용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고민)

1) 농지 - 교양의 내용을 어떻게 잡아야 할지 막막함.

2) 복지 - 준비가 늦어져서 첫해주와 둘째주에 들어갈 팀이 고민됨. 실제활동에 대한 부분은 이전까지의 것과 현장단사를 통해서 고민하고 이후 후속모임을 계대로 해내야 할 것임.

3) 서지 - 93년의 평가를 통해서 제기된 대원들이 통일적인 관점을 가지고 기활을 수행하는 것과 후속작업을 제대로 해내는 부분을 94년에는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인가?

==> 이후의 평가와 구체적인 준비를 통해서 고민들을 모아서 함께 의지를 모아 해결해 나가자.

3. 평가를 위해서

3-1. 왜 총여학생회에서 기활을 수행하고자 하는가

1) 목적지 - 기지촌 여성을 같은 여성으로서 바라보는 장 --> 가시화된 여성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곳으로써 여성문제를 구조적 문제로 인식하는 자리.

2) 시작지 - 기지촌, 기지촌 여성을 바라보면서 중요한 것인 미제국주의의 본질을 바로 보는 것일 것이다.

3) 종지 - 학부들과 총여가 직접 만나는 장. 총여학생회에서 고민해야 할 영역속에 기지촌여성 연대사업을 인정화 시키면서 이후 자통투쟁의 영역을 구체적으로 고민해 들어가야 할 것이다. 즉, 여학생운동에서 자통투쟁을 자기 영역화 체내야 할 것이다.

3-2. 조직적 준비를 위해서 - 지구별 편제를 중심으로

1) 목적지 - 장기적 관점에서 준비하고 지역조직과 시여대학의 강화를 위해서 지구별 편제가 필요하다. 준비를 하면서 처음 진행하는 경우에는 학교별로 어려움이 있겠지만 해어나가야 할 수밖에 없다.

방지의 경우에는 참가하는 학교수도 많고 대학수도 많아서 대비타의 십이 적절할 것이다.

2) 시작지 - 지구별 편제는 긍정적이긴 할지라도 성직화면. 방지의 경우에는 참가하는 학교수가 다른 지구에 비해서 적은 만큼 함께 힘을 합쳐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연대의식의 강화와 지역활동에 대한 승화가 가능.

3) 종지지 - 93년 기획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고려할때 체계적인 지역활동과 지구의 강화를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다.

교육교육사업

1) 93년의 교육내용 - 매대준운체, 기지촌 여성의 삶과 투쟁이론 / 주로 이론적인 부분의 교양이 진행되었음

2) 시작지는 문제 - 토론과정에서 대원들의 불소리로 토론을 전개하면서 통일적인 관점을 가지고 진행하는 기지촌활동 / 여성문제를 구조적인 사회관계로 인식하는 부분 / 94년의 핵심적인 부분을 무엇으로 설정할 것인가

3) 편제의 고민

1) 목적지 - 미제국주의 성취탈을 어떻게 공부해야 할 지 막막함. 93년에 윤금이 누이 살해장면이 담긴 사진을 보고 학우들이 꺼리는 분위기 / 자료집에 실린 내용 달고는 더 풍부하게 고민이 안됨

2) 시작지(경희대의 사례) - "진미양요"에서 미군범죄 사례와 한미행협의 부분. 고삐를 잃고 토론, 한국의 자본주의와 성의 내용을 다루면서 집중했고 별 어려움을 느끼지 못함.

«토론거리»

==> 내용성을 심화시키고 관점을 통일시키는 문제는 이제까지의 내용을 미제국주의의 식민지 상황하에서 벌어지는 왜곡된 한국의 자본주의와 그로인해 조장되고, 구조화된 문제으로써 여성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기본적으로 틀어주면서 토론을 전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 문제는 풍부한 자료의 부족이기 보다는 일관된 관점으로 교양이 진행되지 않는것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후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어떠한 관점과 맥으로 교양을 진행할지 고민하기.

4. 실제활동에서 가져야 할 원칙

1) 장기적연성을 대하면서 - 과거의 삶뿐만 아니라 현재의 삶의 모습을 얘기하면서 풀어나가는 것이 언니들과의 관계에서 더욱 통이하지 않을까 / 언니들과 나눌 얘기꺼리를 준비하자. (사회적 맥락을 다루는 것이 가능할까?)

2) 통일방문 - 회의공유, 평가는 꼭 진행하자.

- 3) 기지방분 - 사전교양에서 제기된 의문들을 기지방분시 질문꺼리로 준비해가자.
- 4) 공부방, 놀이방 - 지구차원에서 5주간의 전체목표를 설정하고 주별로 구체화하자. / 토요일이나 일요일을 활용하여 전주팀과 새로 들어갈 팀의 이월작업을 진행하고, 새로 들어갈 팀은 중간에 예비기활을 수행하자. / 담당 선생님을 정하자. / 일지에 그날 있었던 모든 일을 꼼꼼히 기록하자.
- 5)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프로그램 - 지역선전전 (두레방 홍보, [✓]주한미군범죄 신고센터 유인물등)
- 6) 성교육 프로그램 - 순결이대올로기와 이중성윤리에 대한 관점으로 진행하고 성병등과 관련해 성병검진이나 에이즈 분개등을 살펴 보면서 언니들의 삶을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여성분계를 구체적으로 고민할 수 있는 장을 만들자. / "아시아에서 여성으로 산다는 것은" 비디오 알아보기 → 교육 progra
- 7) 전체해기 모꼬지 - 8월 6-7일 전체 기활대원 모두
- 8) 하루기활 - 기활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과 현재 자원투쟁을 고민하는 단위를 알아보고 다음에 구체적으로 얘기하기 **장동 단위를 하루기활**
- 9) 7.1일 주한미군범죄근절을 위한 운동본부에서 진행하는 "미군범죄 추방의 날" 선전전에 기활대원들 참가하기 (기활대원 **4정활동**)

5. 지역선정

- 1) 지역선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 최대한 많은 학우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 서여대별 전체를 따라보면서 각학교, 지구의 여학생운동 역량과 지역조직의 역량과 알정을 함께 따라보자.
- 2) 지역선정 - 동지: 다비타의 집 / 서지: 동두천 두레방 / 남, 북지: 의정부 두레방

6. 다음회의

- 1) 안건은 - 64년 서여대별 기활의 의의와 목표 / 통일적이고 창조적인 교양을 위해서 실제활동을 어떻게 창조적이고 적극적으로 벌일 것인가 / 하루기활 / 전체 기활일정 확정
- 2) 시간론 - 6/22, 11시, 경기대에서